
볼리비아-아르헨티나 국경지역의 조직범죄

호세 카를로스 캄페로 누녜스 델 프라도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 거버넌스 및 공공행정 박사과정, 베타감마주식회사 고문

원제와 출처: José Carlos Campero Núñez del Prado, "Crimen organizado: una aproximación a la frontera boliviano-argentina", *Nueva Sociedad*, No. 263, mayo-junio de 2016, pp.120-130.

핵심어: 조직범죄, 국경, 공공정책,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중남미, 라틴아메리카

국제조직범죄: 몇 가지 정의

국제조직범죄의 특성, 복잡성, 다차원성 때문에 이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 개념 해석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 것 같다. 팔레르모 협약(2009)¹⁾은 법

1) 2000년 11월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159개국에 의해 채택된, 국제연합의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가리킨다. 국제조직범죄의 위협에 직면하여 자국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국제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국가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협약은 총 41개 조문으로 편제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은 조직범죄집단 등의 용어정의, 조직범죄집단에의 관여행위 처벌, 자금세탁 처벌 및 자금세탁 척결조치,

률적 시각에서 “조직범죄집단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전적 이익이나 기타 물질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대범죄 또는 이 협약에 의해 규정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일정 기간 존속하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집단”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가 포함하는 범죄들은 “대량의 마약거래, 무기밀매, 인신매매, 장기밀매, 문화재밀매, 화폐위조, 환경범죄, 인공두뇌학범죄, 자금 세탁, 그 밖에 많은 범죄들”²⁾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직범죄를 존재케 하는 현실은 이런 1차원적 정의를 뛰어넘기 때문에, 현존하는 범죄조직의 다양한 유형, 조직의 차이와 복합적인 활동, 그들이 개입하는 불법시장을 고려하는 정의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전문 범죄자와 공무원 간의 협력망 구축으로 특징지어지고, 결정적으로 폭력을 통한 다양한 위법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 정치적 관계체제”로서의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새롭고 종합적인 정의들을 채택할 수 있다.³⁾

하여튼, 국제조직범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해주는 정의들을 갖추어야 할 필요를 넘어, “조직범죄를 바라보는 초점이 한 시점에 조직범죄단이 연루된 행동이 아니라 그 조직의 구조와 작동방식에 맞춰진다면 조직범죄가 더욱 잘 척결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팔레르모 협약 또는 다른 법적 장치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 팔레르모 협약은 범죄조직의 활동과 상관없이 그 조직을 공

부패 처벌 및 부패 척결주의, 범죄수익의 몰수 및 국제협력, 범죄인인도, 수행자이송, 형사사법공조, 합동수사, 특수수사기법, 사법방해 처벌, 증인보호, 피해자 원조 및 보호, 법 집행기관 간의 협력증진조치, 국제조직범죄의 본질에 관한 정보수집, 국제조직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계획 수립 등이다-울긴이.

2) 소니아 알다 메히아스: “라틴아메리카의 정부와 조직범죄: 가능한 교류와 공범”(Estado y crimen organizado en América Latina: posibles relaciones y complicidades), Revista Política y Estrategia, 124호, 2014년

3) 같은 책.

격하고 파멸시킬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⁴⁾

볼리비아-아르헨티나의 조직범죄: 법적 테두리

아르헨티나의 법과 볼리비아의 법은 팔레르모 협약과 같은 맥락에서 조직범죄를 유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의들을 가지고 있다. 팔레르모 협약 또한, 결국 조인한 국가들 간의 논의와 합의의 산물이고, 이 협약에는 형법이 반영되어 있다.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 법에 의한 ‘불완전한’ 두 정의는 조직범죄의 특징 중 일부만 언급할 뿐이다. 이들 정의는 팔레르모 협약과 마찬가지로 주로 범죄의 ‘공동’ 수행에, 그리고 특히 볼리비아 법의 정의에서는, 처벌 가능한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감식에 집중된다. 또한, 이 두 나라의 법에서 규정한 정의에는 공무원이 참여한 ‘부패’에 대한 감식이 포함된다. 이러한 개념적 해석은, 조직범죄에 대해 앞서 기술한 종합적 특성의 대부분을 담지 못한다는 점과 이런 범죄 집단에 반대하는 활동이 법률적으로 많은 자잘한 법 규정들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렇기 때문에 치안 담당 조직 및 공공기관의 업무와 결과가 더욱더 방해를 받는다.

국경 도시, ‘쌍둥이’ 도시

볼리비아가 다수의 이웃 국가들과 국경을 이루는 6,834 km 중에서 773 km(11.3%)가 아르헨티나와의 국경에 해당된다. 양국의 국경은 서쪽으로 안데

4) 마르틴 데 시모네: 『아르헨티나의 조직범죄: 민주주의 관점에서의 시선과 인권에 대한 시선』(*Crimen organizado en Argentina: una mirada con perspectiva democrática y de derechos humanos*), La Otra Trama, 부에노스아이레스, 2014년.

스 산맥의 사팔레리(Zapaleri) 언덕에서 시작해 북서쪽 방향으로 파니소(Panizo) 언덕까지 달한다. 거기서부터 산 후안 델 오로(San Juan del Oro) 강을 따라 북쪽을 향해 말파소(Malpasos) 언덕까지 이어진다. 그 후에는 포르틴 캄페로(Fortín Campero)까지 남동쪽으로 가, 베르메호(Bermejo) 강과 그란데 데 타리하(Grande de Tarija) 강이 합류하는 라스 훈타스 데 산 안토니오(las Juntas de San Antonio) 라는 곳에서 멈춘다. 거기서부터 그란데 데 타리하 강과 이타우(Itaú) 강을 따라 올라가 야쿠이바(Yacuiba) 마을까지 이른다. 그곳에서부터 위선 22°S를 따라 필코마요(Pilcomayo) 강에 접한 포르틴 도르비그니(Fortín D'Orbigny)까지, 그다음에는 이 강의 흐름을 따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 사이에 세 부분으로 나뉜 인접지점 에스메랄다(Esmeralda)에 이른다.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 국경에는 세 개의 공식 통로가 있는데, a) 베르메호(볼리비아)-아구아스 블랑카스(아르헨티나), b) 야쿠이바(볼리비아)-살바도르 마사(아르헨티나), c) 비야손(볼리비아)-라 키아카(아르헨티나)다.⁵⁾

21세기 초반 월경(越境)은 국민국가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국경 지역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변화와 혼란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월경의 역할이 중앙정부, 지역정부, 지방자치의 이해관계에 역행하기도 한다. 이런 특성은 근본적으로 '경계(límite)'와 '국경(frontera)' 간의 이분법적 개념 때문이다. 이 두 용어는 곧잘 같은 것으로 혼동되기 일쑤지만 엄연히 다른 용어고, 각기 다른 문제와 관련이 있다. 국가에게, 그리고 각기 다른 수준의 정부나 행정기관에게 영토의 경계란 그 국가의 주권과 사법권을 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공간이다. 경계에서 비롯된 선형성이라는 개념은 한 국가 내의 정치·행정적 한정 그리고/또는 경계 획정에 대한 국가 간 조약으로 실체화하는 법률적 의미에

5) 톨란도 멘도사: “볼리비아-아르헨티나 국경의 인신매매”(Trata de personas en la frontera Bolivia-Argentina), Friedrich-Ebert-Stiftung, 라파스, 2012년.

근거한다.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류의 경계 위에 국경이 있다. 경계와 달리, 그리고 법적 개념과 달리, 국경은 영토의 특정 부분에서 경계의 이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이는 주민, 인프라, 서비스의 초기 기반시설들의 상호작용 과정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의미에서 비롯된다. 이런 상호작용은 사람과 재화, 서비스의 끊임없는 교환을 통해 국경의 밑그림을 그리거나 윤곽을 잡는 연대책임과 이해관계를 낳는다.

역사적 관점에서 지역통합의 주요 대상으로서의 국경의 발달은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왔다. 이런 요인들은 국경 지역의 일반적인 특징을 결정지었다. 그 특징인즉슨 a) 국가의 활동적·역동적인 중심지로부터 격리되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 b) 자신만의 지역경제를 유지하는 지역, c) 해당 국가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침체되고, 미미하며, 불평등한 발전을 보이는 지역, d) 더욱 역동적인 곳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 그리고 e) 지역 내 활동들을 장려할 적절한 제도가 부족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이런 틀에서 보면, 어느 국경 통과지역에서든지 간에 볼리비아-아르헨티나 국경은 경제와 삶의 전반적인 면에서 비공식성 지수가 높은 인구와 공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도시에서의 '정상적인' 일상 활동은 국제정치의 형식주의가 국경선의 윤곽을 그리는 것처럼 잘 감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국경 거주민에게 삶은 비록 강 때문에 나누어져 있지만 같은 한 도시에서 흘러간다. 주민들은 '쌍둥이 도시'라고 불리는 곳에서 살아간다.⁷⁾

6) 루이스 알베르토 올리베로스: "안데스 통합이라는 맥락과 관점에서의 개념"(El concepto de frontera en el contexto y en la perspectiva de la integración andina), Comunidad Andina, 2002년 2월.

7) Lía Osorio Machado: "Limites, fronteiras, redes, fronteiras e espaço global" en Tania Marques Strohaecker et al. (eds.): Fronteiras e espaço global, agb, Porto Alegre, 1998년.

이 도시들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 문화적, 연대적, 그리고 국경의 연합적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이 자본은 엄밀히 말하면 비공식성의 산물이다. 그 결과 주민들은 이미 익숙해진 위법활동에 대한 포용지수가 높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국경도시에서의 삶 그 자체가 되고, 사회·경제·정치활동의 대부분은 어떻게든 이런 현실을 관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마치 국경의 관점에서가 아니면 분석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국경의 주요 문제들이 사람, 재화, 서비스의 자유로운 통행을 막는 장애물들 때문에 발생한 것과 같다. 국제관계에 대한 규범은 국경을 규제하기 위해 작용하지만 쌍둥이 도시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작용한다. 두 도시 간의 사회·정치·경제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널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수의 조약 및 협정이 밝히고 있듯이, 사람, 재화, 서비스의 일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것들이 여느 다른 국경에서처럼 다루어진다면, 지금 당장 불법행위가 만연해있는 상황에서 그 불법성을 공식화할 동기는 더욱 커진다. 이런 구조적 특징이 적절히 고려되지 않으면, 밀수를 자극하는 느슨한 무역통제의 '긍정적인 비공식성'이 활기를 띠게 될 뿐만 아니라 강탈, 인신매매, 마약밀매 같은 활동이 한층 강해진다. 이런 활동은 복잡한 범죄고, 현재 불법행위들의 네트워크와 그들의 이전 경험을 이용하는 조직범죄 집단의 관여를 필요로 한다.⁸⁾

조직범죄 집단의 행위에 있어서 유일하게 차이를 만드는 것은 국경에 이미 있던 기존 사회자본의 발전 수준일 것이다. 즉, 쌍둥이 도시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관계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존재했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국경 도시의 사회자본이 오래되고 그 수준이 높으며 집중적이고 강할수록, 조직범죄가 주요 행위자가 될 가능성은 적을 것이다. 조직범죄집단은 이미 발전해서 작동 중

8) Rebeca Steinman: "A geografia das cidades de fronteira: um estudo de caso de Tabatinga (Brasil) e Leticia (Colômbia)", tesis de maestría, Universidad Federal de Río de Janeiro, 2002.

인 그 지방의 네트워크와 불법적 서비스에 적응하고 그것들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⁹⁾ 반면 사회자본이 여전히 형성 중인 갓 세워진 도시일 경우 조직범죄 집단은 빠르게 중심 행위자가 되어 게임의 규칙을 정립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자본을 발전시킬 방법을 주조할 가능성이 높다.¹⁰⁾

볼리비아-아르헨티나 국경의 조직범죄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 간의 국경 지역들은 이미 발전된 사회적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범죄조직은 이미 그 지역에 존재하는 행위자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불법행위자가 된다. 실제로 그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기존에 존재하는 서비스를 활용하기도 하고, 자체적인 물류관리능력을 쇄신하기도 한다. 이렇게 국경에 접한 공간에서 범죄조직들의 지배하에 벌어지는 주요 범죄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a) 마약거래, b) 인신매매, c) 밀수. 이 글은 이런 국경에 존재하는 조직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마약거래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국경에서의 대량 마약거래는 최근 10년간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코카잎에서 추출한 불법생산물(파스타 바세,¹¹⁾ 코카인의 원료, 코카인)에 대해 미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이다. 페루와 볼리

9) J.C. 캄페로: "국경도시의 치안문제에 대한 연구: 데사과테로 시(市)의 사례"(Estudio exploratorio sobre problemáticas de seguridad en ciudades de frontera: caso ciudad de Desaguadero), Friedrich-Ebert-Stiftung, 라파스, 2013년.

10) J.C. 캄페로: "국경도시의 치안문제에 대한 연구: 코비하 시의 사례"(Estudio exploratorio sobre problemáticas de seguridad en ciudades de frontera: caso ciudad de Cobija), Friedrich-Ebert-Stiftung, 라파스, 2012년.

11) 저렴하고 매우 중독성이 강한 코카인 부산물-옴긴이.

비아 같은 생산국으로부터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이 마약무역은 북미 시장을 겨냥한 마약무역보다 더 수익성이 높고 덜 위험하다. 북미 시장에서는 사실상 콜롬비아가 독점공급자다.

비록 국경지역에 그 지역 자체의 범죄 조직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밀수입에 집중된 자체 사업에 종사해 왔다. 그런데 이 지방 조직 중 많은 곳이 더 낮은 비용과 위험으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 범죄 조직들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예를 들어, 육상수송이나(‘노새’처럼 일하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하천수송을 통해 아르헨티나로 유입된 코카인은 국경도시에서 일상적으로 밀매되는 다수의 상품에 추가된 제품이다. 코카인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운반하기 위해, 마약밀매에 종사하는 지방 행위자들(‘밀무역업자들’)과 하도급 계약을 맺는데, 이 지방 행위자들은 여타 다른 범죄 조직에 비해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 마약거래 사업은 주로 콜롬비아나 멕시코의 국제 범죄조직들이 장악하고 있다. 브라질과 페루 조직들도 존재하긴 하지만 말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국경 지역에 마약거래 및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 조직들의 존재가 입증되었다. 예를 들어, 후아레스, 티후아나, 그리고 시날로아의 카르텔들, 로스 세타스,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노르테 델 바예 델 카우카의 카르텔, 로스 우라베노스(콜롬비아), 제1 코만도 카피탈, 코만도 베르멜로(브라질), 센데로 루미노소, 투팍 아마루 혁명운동(MRTA)(페루)이 대표적인 마약조직들이다.¹²⁾ 이 조직들은 마약의 공급과 운반, 그리고 종종 아르헨티나 시장에서의

12) 마리아노 세사르 바르톨로메: “아르헨티나의 치안 악화와 범죄행위: 대량 마약거래를 하는 지역 마약조직의 존재”(Inseguridad y criminalidad en la Argentina: la presencia de carteles regionales del narcotráfico), 남미 원불꽃 지역의 통합을 위한 제2차 인문학 및 과학기술학 회담의 발표논문, 세르히오 아르볼레다 대학교, 보고타, 2013년 5월; “대량 마약거래: 아르헨티나 북동부에서 멕시코 마약조직의 세포들을 고발한다(Narcotráfico: denuncian células de cárteles mexicanos en el nordeste

판매 또는 해상수단을 통한 아프리카와 유럽 시장으로의 상품 발송까지 전반적인 마약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일명 ‘하얀 비(Iluvias blancas)’라는 항공편이나 500개 이상의 비밀 도로를 통해 볼리비아나 파라과이로부터 아르헨티나로 유입되는 커다란 화물들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 행위자와의 연관 그리고 부패.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유형의 범죄활동을 위해 볼리비아-아르헨티나 국경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들은 공무원(세관, 출입국 관리, 경찰, 시장, 법관, 검찰직 등), 시민사회(노동조합, 상인단체, 운송업자 단체, 주민협회, 운동협회, 기타 협회), 그리고 나머지 조직들(NGO, 자선단체, 직업소개소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들과 유착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유착 관계가 없다면 불법행위와 연관된 금융거래 비용, 물류거래 비용 그리고 위험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문기사들은 범죄조직들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도, 조직, 사람들을 어떻게 소모시키는지 매일 예를 보도한다. 몇 개의 발췌문을 살펴보자.

마약 밀매업자와 정치권의 연관이 어제 상원 의회에서 아르날도 지우치오 의원이 준비한 자료에서 사실로 드러났다.¹³⁾

대량 마약거래와의 전쟁의 상징인 라울 레이노소 연방판사가 용의자가 되었다고 살타 데 바비오 판사는 조사를 명령했다. 현재 레이노소 판사가 거금을 받고 마약

argentino), Momarandu.com, 2016년 3월 4일.

13) “지우치오 상원의원이 마약 밀매업자와 정치인들의 연계를 밝혔다”(Senador Giuzzio expuso los vínculos de los políticos con el narcotráfico), 《울티마 오라》, 2014년 11월 21일.

거래 소송으로 체포된 인물들을 석방시킨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 중이다.¹⁴⁾

마약 밀매업자 소송에 연루된 경찰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최근 30개월간 11개 주의 치안병력과 연방경찰 111명이 마약법에 의거하여 기소되었다. 그 중에는 고위 직이 최소 여섯 명이다.¹⁵⁾

어제 프로페소르 살바도르 마사의 시의원, 알레한드로 마우린의 체포는 전국에 정치적·사회적 소요를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마약거래 네트워크의 규모를 밝혀낸 헌병대 ‘페브레로 블랑코’의 작전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이었다. 페브레로 블랑코는 살바도르 마사에서 4개월간 0.5톤이 넘는 코카인, 50만 달러, 차량 10대를 몰수했다.¹⁶⁾

‘카르본 블랑코’로 알려진 대규모 마약밀매 소송에 관련된 중심인물 중 한 명이 선 풍기를 틀기 시작했고, 우리가 몇 달 전부터 줄곧 신문 지면에서 경계하던 것을 시인했다. 즉, 국세청¹⁷⁾(특히 리카르도 에체가라이가 이끄는 기관의 일부인 세관)과 대규모 마취제 불법수입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인했다.¹⁸⁾

14) “살타 스캔들: 마약 밀매업자를 석방시켜 죄를 뒤집어쓴 오란의 연방판사”(Escándalo en Salta: juez federal de Orán imputado por liberar narcotraficantes), 《노르테》, 2015년 11월 4일.

15) 구스타보 카라바할: “점점 더 많은 경찰이 대량 마약거래로 기소 중”(Cada vez son más los policías procesados por narcotráfico), 《라 나시오》, 2015년 7월 12일.

16) “살바도르 마사: 대량 마약거래로 시의회 의장이 체포되다”(Salvador Mazza: detienen al presidente del Concejo Deliberante por narcotráfico), 《클라린》, 2016년 2월 26일.

17)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은 내국세와 관세, 사회기관세를 모두 관장하는 기관이다-옮긴이.

18) “선풍기를 틀다: 세관과 대량 마약거래의 공모”(Prenden el ventilador: la complicidad de la Aduana con el narcotráfico), 《오늘》, 2015년 7월 10일.

아르헨티나 경찰은 기업가이자 볼리비아 국영 석유 기업의 전직 도급업자이자 마약거래로 소송 중인 호세 루이스 세하스 로살레스의 재산 2백 5십만 달러를 압류했다. [...] 세하스가 2014년 2월 14일 살바도르 마사의 국경을 통해 아르헨티나로 마취제를 들여오려 했다는 증거가 충분히 있다. 당시 치안병력이 액체와 톨루엔 상태의 코카인, 즉 마약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코카인 이전 단계의 화학물질이 [...] 회사 화물트럭의 연료탱크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냈다.¹⁹⁾

온갖 종류의 곡물과 마약의 원시적인 맞교환은 마약 밀거래 과정의 시작이다. (볼리비아에서 지극히 중요한 투자다. 마약 밀매업자에게 이윤의 폭이 가장 큰 돈벌이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런 거래는 여러 도시에서 관료 통제로 인해 무력 대립을 야기한다.²⁰⁾

폭력, 교역, 그리고 재산 세탁. 아르헨티나 대도시에서 소매 판매 시와는 달리, 볼리비아-아르헨티나 국경에서 마약을 밀매 시 폭력의 수위는 거의 미미하다. 범죄조직들은 ‘더 많은 폭력은 더 적은 거래’를 의미한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살인을 저지르는 이들은 조직범죄 집단의 큰 거래와는 거의 무관한, 도시의 마약밀매 소매업자들이다. 요즘은 조직범죄 집단들은 사업의 가장 복잡한 과정, 즉 유통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집중한다. 이 유통은 무역의 세계화와 글로벌 차원의 상품 운송서비스의 발전에 의해 도움을 받는다. 조직범죄 집단들은 자신의 불법상품을 유통시키기 위해 이 거대한 서비스망을 활용한다. 또한, 조직의

19) “아르헨티나는 대량 마약거래 피의자 세하스의 재산을 압류한다”(Argentina embarga bienes de Sejas, acusado de narcotráfico), 《파히나 시에테》, 2015년 8월 29일.

20) 다니엘 가요: “볼리비아와의 경계에서 코카인과 곡물이 맞교환된다”(En el límite con Bolivia se intercambia cocaína por granos), 《라 나시온》, 2016년 3월 21일.

일원이 아닌 행위자들과 하도급을 맺고 그들에게 작업을 시킴으로써 체포될 위험을 줄인다. 이렇게 해서 교도소는 국제범죄조직과는 아무 상관 없으면서 마약 거래라는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로 가득하다.

마약거래의 최고 우두머리와 중간 우두머리들은 계속해서 자유롭게 자신의 사업체를 조직하고, 자신이 활동하는 구역의 경제에 막대한 액수의 돈을 투입한다. 그들의 목적은 보호와 면책을 획득하고, 자신의 일을 용이하게 하며, 국가를 대신해 서비스(물, 전기, 운송, 관광)를 제공하거나 가정문제나 사업문제 해결 같은 평화적 정의 또는 악한 사업 행태에 대한 산발적인 처형을 통한 폭력적 정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그들을 위해 일하고자 접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른 방식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경제·사회·정치적 기회를 합법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²¹⁾

조직범죄의 결과

광활한 영토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국경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정부의 힘이 약화된다는 것은 주권이라는 정치적 개념의 행사를 정지시키고 조직범죄집단으로 하여금 영토 통제의 원칙을 피해 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국경 지역에서 범죄조직들은 금지된 것들에 대한 거래를 확대, 강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발전시켜 왔다. 범죄행위의 합법성과 그리고 범죄행위에서 비롯된 이익은, 법이 사회적 행위를 통제하기에 비효율적이고 유효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현재의 법규범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이는 공공질서와

21) 같은 책.

관련한 제도와 조직들의 활동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든다.

국경 지역의 제도적 취약성, 그리고 치안 관련 공직자들의 매우 낮은 급여 수준과 역량과는 대조적으로, 마약거래라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사업은 범죄 조직들로 하여금 활동구역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자신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세력 확대에 적합한 상황을 양산한다. 따라서 그들은 면책의 성역을 만들어냄으로써 대안적인 사회적·법적 규정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면책 성역에서 국가는 주권행사를 최소한으로만 할 수 있을 뿐이며, 따라서 범죄조직들은 처벌받을 위험 없이 치안병력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 부패, 협박, 면책은 그렇게 범죄조직의 합법성을 뒷받침해주는 주요 요인이 된다. 그러는 사이, 공공의 기능은 법과 면책 앞에서 차별적으로 행사되며 불공평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따라서 법치국가는 다른 국민들에게는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 결과 국민들의 관점에서 모든 법적 시스템은 합법성을 잃어버린다.²²⁾

경제력, 정치권력 또는 기타 권력과 같은 사회적 조건이 사법적 판결을 결정한다는 인식은 범죄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많은 개인과 집단에게 모방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다시 말해, 법적 정의가 아니라 소송 당사자들의 재력에 근거를 둔 국가 제도들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파기하는 바로 그 게임에 뛰어들다.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이 아르헨티나를 집권하면서, 그리고 볼리비아-아르헨티나 국경에서 마약거래가 비약적으로 늘고 아르헨티나의 마약 소비시장에서의 폭력이 악화하면서, 지난 몇 달 사이에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 양국 간의 관계는 그들의 어젠다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이것은 나머지 국민들이 국경에서 거래를 하는 데에 드는 비용, 즉 사람, 재화, 서비스의 통관에 걸리는 시간

| 22) 같은 책.

과 수속의 관료주의를 증가시켰다. 이는 범죄성을 추정하는 데 드는 비용 또는 사람, 재화,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장벽 증가와 관련된 비용들이다.

조혜진 옮김